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 성 민

2009년 8월

#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허철수

박성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박성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9년 8월

< 국문초록 >

##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박 성 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sup>1)</sup>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대인관계 하위요인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품성계발 집단상담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C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0명씩(상담집단 10명, 비교집단 10명)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척도 검사는 Guerney(197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김신정(2008)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적용한 것을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하위요인으로는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의 7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5문항이고 문항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본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2000년에 청소년용 품성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으로 ‘정직’, ‘배려’, ‘자기조절(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남의 장, 진실의 장, 화목의 장, 지혜의 장, 조절의 장, 결실의 장으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본 연구자는 시설청소년의 특성 및 시설 실정에 맞게 회기를 조절하여 만남의 장 1회기, 진실의 장 1회기, 화목의 장 1회기, 지혜의 장 1회기, 조절의 장 1회기, 결실의 장 1회기 총 6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매주 2회, 100분씩 총 6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분석은 Windows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사전-사후검사 자료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는 품성계발 집단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시설청소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 시설청소년은 대인관계 하위 영역인 만족감, 의사소통, 친근감, 개방성에서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시설청소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 정도인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타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줄이며, 타인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건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설청소년이 품성계발 집단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있어서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시설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6
2.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9
3. 품성의 개념	11
4.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12
5. 품성계발 프로그램과 대인관계와의 관계	14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설계	18
3. 연구도구	18
4. 연구절차	21
5. 자료처리 방법	22
IV. 연구결과	23
1. 연구대상의 동질성 검증	23
2. 가설 검증	24
V. 요약, 결론 및 제언	37
1. 요약	37
2. 결론	39
3. 제언	40
참고문헌	41
Abstract	45
부 록	48

## 표 목 차

<표Ⅲ-1> 연구 대상자의 구성 .....	17
<표Ⅲ-2>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	19
<표Ⅲ-3> 대인관계 척도 검사지의 문항항목 .....	21
<표Ⅲ-4> 연구의 진행 절차 .....	21
<표Ⅳ-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전 동질성 검정 .....	23
<표Ⅳ-2> 상담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전·사후 차이 검정 .....	24
<표Ⅳ-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후 차이 검정 .....	26
<표Ⅳ-4> 만족감의 사후검사 비교 .....	28
<표Ⅳ-5> 의사소통의 사후검사 비교 .....	30
<표Ⅳ-6> 신뢰감의 사후검사 비교 .....	31
<표Ⅳ-7> 친근감의 사후검사 비교 .....	32
<표Ⅳ-8> 민감성의 사후검사 비교 .....	34
<표Ⅳ-9> 개방성의 사후검사 비교 .....	34
<표Ⅳ-10> 이해성의 사후검사 비교 .....	36

## 그림 목 차

[그림Ⅲ-1] 연구설계의 구성 .....	18
[그림Ⅳ-1]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대인관계 척도 점수의 변화 .....	25
[그림Ⅳ-2]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대인관계 척도 점수의 변화 .....	27
[그림Ⅳ-3]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만족도 점수의 변화 .....	29
[그림Ⅳ-4]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의사소통 점수의 변화 .....	30
[그림Ⅳ-5]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친근감 점수의 변화 .....	33
[그림Ⅳ-6]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개방성 점수의 변화 .....	3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적절한 대인교류는 만족을 느끼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은 수명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대인관계 향상의 중요성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천적인 생존과 성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바로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대인관계를 통해 신체적으로 성장하며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의 존재를 배워간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대인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은 거의 한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명선, 2005).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 중의 한 시기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 양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이중적 성격 즉, 주변인(marginal man)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이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그런 변화가 기존의 질서와 부딪혀 혼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가족들의 배려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박선아, 2005),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 부모의 이혼, 별거, 미혼모, 부모의 방임 및 학대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시설보호를 받게 된다(하은정, 2007).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대규모 집단생활의 거주형태이다. 그러므로

시설청소년은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단체생활 속에서 성장하므로 적절한 지적 자극이 부족하여 인지적, 행동적 발달특성이 일반청소년 보다 느리고,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인으로서 원활한 기능의 수행과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곤란하게 만든다(박선아, 2005).

시설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며,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충분한 정적인 욕구 발산의 기회가 많이 없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될 수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생활규칙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성 및 자주성, 창의성 등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현옥, 2001).

시설청소년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타인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사회적인 유대와 반목이 심하여 인간관계에 있어 갈등이 심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배양숙, 2002).

또한 시설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하여 가정생활과 학교 및 개인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행동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회부적응 행동은 시설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은 한, 사회나 여건에 따라서 비행으로 변하게 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미숙한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조력활동의 하나로 집단상담의 실시를 들고 있다. 설수인(1990)은 집단상담이 상담자와 집단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깊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과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호간의 신뢰감을 높여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하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고, 황현주(1996)는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에 관련된 태도·정서·의사결정, 그리고 가치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집단적 접근 방법이며, 이러한 집단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집단원들로 하여금 타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고 있으며, 또 자신은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우리사회의 비도덕성과 청소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995년부터 도덕성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0년부터는 보다 기본적인 ‘청소년 품성계발’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인 ‘멋진 우리’를 개발하고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멋진 우리’ 청소년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정직, 배려, 자기조절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직은 개인생활의 덕목, 배려는 사회생활의 덕목, 자기통제는 의지와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덕목으로 3가지 덕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덕목의 함양을 위해 모델학습, 집단토론 및 피드백, 심리극 기법,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 기법들이 활용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이정희(2008)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며,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말과 행동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자아성장장에서 기본이 되는 자신감, 긍지감, 대인관계 향상, 자율성 향상 등을 유지하도록 돕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양은모(2006)와 이의중(2003)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흔히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 속하며 성장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원만한 대인관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설청소년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대인관계 하위요인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집단상담에 참여한 후, 참여하기 전에 비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만족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개방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7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이해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시설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품성의 개념,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품성계발 프로그램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설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육성차원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24세로, 청소년 보호차원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으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중 만 13세부터 만 18세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동 및 청소년들이 24시간 거주 하면서 집단보호를 받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집단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하은정, 2007).

아동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급증한 요보호대상자가 하나의 문제로 부상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들에 대한 보호요구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육시설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영아원(만3세 미만 아동 수용), 육아원(만3세~18세 미만의 아동 수용), 모자원, 부랑아 보호시설 등이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

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서비스다.

시설보호는 혈연적으로 서로 무관한 아동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어른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거주함으로써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선아, 2005).

대규모시설보호의 목적은 과거에는 고아나 미아를 대상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장기 수용 보호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불충분한 가정의 양육 환경을 대리하여 보호해주고, 가정의 붕괴로 인해 갖게 된 심리·정서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정하여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거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하은정, 2007).

시설보호의 기능은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능(거주기능, 급식기능, 기타 생활서비스 기능, 보건기능) 및 치료훈련서비스를 위한 기능(의학적인 치료나 처우의 기능, 교육과 훈련의 기증)과 원조서비스를 위한 기능(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관계의 조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박선아, 2005).

시설청소년은 다양한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편부 등과 같은 가족해체로 인해 물리적·신체적·정신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조건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적인 형태로 수용, 보호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공명자, 2003). 이들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으로 규정하는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보호 양육되며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할 때에는 시설보호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시설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인지발달 측면, 정서발달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설청소년은 인지발달 측면에서 인지발달 지체, 학습장애, 창의성 부족, 집중력 부족, 언어발달 지체(말더듬기, 불분명한 발음)의 특성이 나타난다. 둘째, 시설청소년은 정서발달 측면에서 열등감과 같은 낮은 자아존중감, 수치심, 불안, 우울, 책임감 부족, 무기력감, 히스테리적 감정폭발의 특성이 나타난다. 셋째, 시설청소년은 행동적 측면에서 공격적 특성, 소극적 특성(약한 표현력, 지나친 수줍음), 주의산만, 도벽, 거짓말, 의존적 특성(성취동기 부족), 지나친 짜증, 물품낭비의 특성이 나타난다.

시설청소년은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청소년보다 심각한 정서

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시설청소년은 장기적인 집단생활과 규율화로 인해 개방적이고 따뜻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인의 특성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인 욕구 발산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자신의 출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는 시설병을 보인다고 한다(김선희, 2001).

또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입소 전부터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아동이 입소 후 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실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Mahler(1975)는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분리가 격리에 대한 더 심한 공황적이고 폭발적인 거부를 일으켜 애착에 대한 망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설아동은 어린 나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조건하에서 강제로 분리가 이루어짐으로서 이미 유기불안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것이 현실화되어 경험된 것으로 이후 상상적인 유기에 대한 불안과 자기 상황을 극단적으로 이상화하지 않으면 완전히 평가절하 하는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만성적 공허감과 부적절한 분노 그리고 전반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오정민, 1997, 재인용).

시설청소년은 부모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차단당함으로써, 불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적, 물적 자원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형성 능력이 결여되기 쉽다(김상백, 2008).

시설청소년은 청소년기에 가정환경의 성장발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보육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한다. 이곳에서 시설청소년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에는 제약이 많으며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어 개성의 발달 또는 정서적, 신체적, 창조적 능력의 발달에 대한 기회를 놓치기 쉽다.

결국 정상적인 가정에서와 같이 시설청소년은 개별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므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대부분 애정결핍,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성장 환경 및 기질적 특성은



시설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문제 행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내포하게끔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거나 올바른 사회성을 이루어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 2.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요즘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심리적인 관계 또는 인간 대 인간간의 상호적 행위양식 혹은 인간들 사이에 형성되는 원만한 심리상태인 인화술 및 사교술을 의미하는 인간요소의 일반을 지칭하는 광의의 의미이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의 사람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대 1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둔다(장혜숙, 2007).

대인관계의 좁은 의미로는 인간관계이고 넓은 의미로는 인간에 관련된 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인간관계라 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일정한 집단 내에서 진실한 휴머니즘에 기초를 두고 집단의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기술,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오유자, 2004).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낸다. 더불어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발휘하며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연구해왔으며 심리학자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인관계의 형성과정과 특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왔다.

Sullivan(1953)은 대인관계는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 감정 표현 등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교성, 군집성, 협동성, 친절성, 사회적 의존성, 모방성, 용역성, 대인 순응성, 관용성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을 위해서 환경

과 성공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환경이란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로 구성됨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는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대인관계의 결함은 여러 가지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최지경, 2004, 재인용).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한다. 특히 타인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 개인은 자아를 발달시킬 뿐 아니라 자아를 존중하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를 통해 단순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공유해나가는 중에 점차 자기를 통찰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하게 된다(황기남, 2003).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도 순조롭지 못하여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나 교우관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통제되고 획일화된 학교 규칙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내면적으로 경험하며, 때로는 그것이 우울, 불안 증상으로 발전되어 비행을 일으키거나 공격적 태도를 갖게 되어 반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임동숙, 2000).

청소년기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줄 알게되고, 지적·정의적·사회적 발달을 이루며 이 시기에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개인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삶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응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대인관계 형성이 미분화된 사람의 특성을 보이는 등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윤정연, 2000).

위와 같이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인간 상호간의 신뢰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

시설청소년은 각기 다른 가족 배경과 시설보호 경험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 아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관계의 단절 즉 타인과의 신뢰 관계의 부족이다. 시설청소년은 부모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차단당함으로써 불리한 사회화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적 물적 자원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형성능력이 결여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자의 비지속성과 행동반경의 제한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과도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정서적인 불안정과 두려움, 사회적인 반목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장인협, 1988).

원만한 대인관계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청소년시기와 더불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시설청소년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대인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3. 품성의 개념

품성이란 말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품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품성이란 인간이 갖추고 있는 중요한 성향적 특징으로서 도덕적인 측면과 성격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추상성이 높으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품성과 유사하게 쓰이는 개념으로는 인격, 인성, 품성, 성격, 기질, 사람됨 등이 있다.

사전에서의 품성의 정의는 ‘사람 된 바탕과 성질’이다. 여기서의 ‘사람됨’이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의 측면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불어 사는 도덕성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격과 본질상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용어 사전에 의하면 품성이란 지적, 정적, 의지적 특성들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으로 개체의 ‘노력’ 또는 ‘후양’에 의해 형성되는 특징에 한정되어 이해되는 말로써 생득적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양은모, 2006).

품성은 영어로는 character로 개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행동과 규칙을 내포하고 있다. character란 ‘습득되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행동에너지와 추진력을

제공하며, 인간이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정직, 배려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를 말한다. 즉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상태로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로 정의한다(김은숙, 2007).

이처럼 품성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천적인 특성과 아울러 후천적인 학습과 훈련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의미가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한 인간이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취한 하나의 ‘업적’으로서의 성향적인 특징, 즉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상태를 지칭하게 되며 이는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정미경, 2008).

본 연구에서 적용한 품성의 개념은 선천적인 측면보다는 학습과 훈련에 의해 수양되는 후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상태를 곧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 4. 품성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이상만(2001)은 인성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 중학생 시기는 가치관과 자선에 대한 관심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심 등이 날로 증가된다고 하였다. 정운계(1985)는 학교에서 품성교육을 학생으로 하여금 장래에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적합한 전인적인 자기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현희애, 2006, 재인용).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우리사회의 비도덕성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995년부터 도덕성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0년부터는 청소년품성개발로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품성개발 프로그램인 ‘멋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의 목표를 인격 혹은 품성개발로 보고, 품성이 도덕적 인지,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행동의 세 가지 요인에서 발현되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통합적인 품성교육론에 입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멋진 우리’는 수많은 덕목들 중에서 학교 및 상담현장에서의 지도자들, 전문가, 품성계발 교수요원 등으로부터의 자문과 청소년들에게 면접, 품성 설문조사를 거쳐 정직, 배려, 자기조절이라는 세 가지 덕목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덕목들을 인지, 정서, 행동 3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여 덕목 실천의 실천동기와 의지를 키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방법을 프로그램화 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주요 덕목인 정직, 배려, 자기조절의 내용 및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되는 대표적인 덕목의 하나이다. 불교의 실천덕목인 팔정도론에서도 바른 관찰, 긍정적인 사고, 상냥한 말씨, 친절 한 행동, 지혜로운 생활, 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 미국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보고서(Endo, 1990)에서 정직성, 미래에 대한 안목, 인내, 자발적 참여, 교육관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교육부에서도 정직과 신뢰를 국가의 도덕적 건강을 결정하는 준거로 지칭(Wright, 1989)함으로써 정직성이 한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집단과 사회전체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김은숙, 2007, 재인용).

타인의 입장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관여하는 덕목으로 배려, 공감, 동정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 행동으로 직결되는 덕목이 바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활동이 미디어 중심의 개인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보다는 가상의 현실에 빠지기 쉬운 오늘날의 고도의 기계문명 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체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 학원폭력, 또래들의 잔혹행위 등과 같이 관계성 문제 유형들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려는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이라고 하겠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자기조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영숙(1995)은 현대 심리학에서, ‘자기 통제’란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

동과 그 행동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방해의 용인을 제거하고 표적 행동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안동실(1996)은 사람은 누구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 자기육구 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욕망과 책임간의 갈등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기 통제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이정의, 2008, 재인용), 이상현(2009)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규범을 내면화하고 욕망과 책임간의 갈등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덕목이며, 자신의 감정, 욕구,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직, 공정, 책임과 같은 여러 덕목들에 대한 지식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개인생활의 덕목인 ‘정직’, 사회생활의 덕목인 ‘배려’, 의지와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덕목인 ‘자기통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덕목의 함양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모델학습, 집단토론 및 피드백, 심리극 기법,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기법들이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 5. 품성계발 프로그램과 대인관계와의 관계

2000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들의 품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정직, 배려 및 자기통제를 증진할 수 있는 ‘멋진 우리’라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달적 측면에서 조기 품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1년에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인 ‘멋진 우리’를 초등학교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수정·보완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학교와 시범학급 초등학교 60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프로그램 운영 후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집단 간 정직과 학급응집성

변화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도덕적 자아개념 변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자기조절, 배려, 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평균 점수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후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서차점(2002)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개인 신념 및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비합리적인 신념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자기 통제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의중(2003)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 및 자기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도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현주(2004)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교우관계 하위요인인 신뢰감, 존중감,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양은모(2006)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은숙(2007)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불교 어린이학생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요인 중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 활동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정의(2008)는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공격성이 의미 있게 감소되었으며, 하위요인인 대물공격, 언어성 공격의 점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감민경(2008)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정미경(2008)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사회성 총점과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점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도구, 연구절차,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대상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C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시설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상담집단 10명, 비교집단 10명으로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 내용은 아래의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자의 구성

구 분	상담집단	비교집단
중학생	6	6
고등학생	4	4
계	10	10

##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설계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상담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 결과를 평가하는 ‘사전-사후 상담·비교 집단 설계’이며, 집단상담 실시 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게 대인관계 척도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집단에게만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총 6회기의 집단상담이 모두 끝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을 동시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구성 내용은 아래의 [그림Ⅲ-1]와 같다.

상담집단	O <sub>1</sub>	X	O <sub>2</sub>
비교집단	O <sub>3</sub>		O <sub>4</sub>

O<sub>1</sub>, O<sub>3</sub> : 대인관계 척도 사전검사

O<sub>2</sub>, O<sub>4</sub> : 대인관계 척도 사후검사

X : 품성계발 집단상담

[그림Ⅲ-1] 연구설계의 구성

##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척도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및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2000년에 청소년용 품성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으로 ‘정직’, ‘배려’, ‘자기조절(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남의 장, 진실의 장, 화목의 장, 지혜의 장, 조절의 장, 결실의 장으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본 연구자는 시설청소년의 특성 및 시설 실정에 맞게 회기를 조절하여 만남의 장 1회기, 진실의 장 1회기, 화목의 장 1회기, 지혜의 장 1회기, 조절의 장 1회기 결실의 장 1회기로 한 회기 당 100분씩 6회기 총 600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차례	내용	세부목표	해당덕목
1	1.만남의 장	-게임 한마당 -자기소개 -신기한 문방구 -우리의 다짐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 더불어 사는 마음,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앞으로 함께 할 집단상담이 이러한 마음을 키워 가는 과정임을 안다.	정직, 배려, 자기통제
2	2.진실의 장	-게임 한마당 -호호 터는 기쁨 -타임머신 획~	부정직한 행동에 관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런 행동에 따른 불편한 감정과 결과를 깨닫고, 정직한 행동을 실행하는 기쁨을 깨닫는다.	정직
3	3.화목의 장	-게임 한마당 -더불어사는 마음 -마음의 선물	집단 따돌림(친구문제)에 대한 역할극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현실감 있게 느껴보고, 배려 행동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배려
4	4.지혜의 장	-게임 한마당 -지혜로운 생각 -느낌나누기	생각 유형에 따른 행동, 감정 및 그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 지향적 생각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기 지향적 생각, 외부 지향적 생각, 가치 지향적 생각 유형을 변별하고, '가치 지향'적 생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한다.	정직, 배려
5	5.조절의 장	-게임 한마당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 -걸림돌과의 승부	진실한 마음, 더불어 사는 마음을 실천할 때 방해가 되는 내적 걸림돌, 외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안다. 걸림돌과의 가상적 만남을 통해 걸림돌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진다. 사례를 통해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기통제
6	6.결실의 장	-게임 한마당 -인생의 갈림길 -마무리	걸림돌을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결과를 함께 경험하여 걸림돌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굳힌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요약하고 집단원들이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정직, 배려, 자기통제

## 2) 대인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수준을 평가하고자 Guerney(197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김신정(2008)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적용한 것을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척도는 전체 25개 문항으로,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의 7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만족감은 내가 나와 타인에 대하여 타인이 나에게 대하여 보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의사소통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의 원만성, 타인의 욕구와 바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정도, 나와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이해정도, 나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의 난이도 정도를 말한다.

셋째, 신뢰감은 타인과의 신뢰도 정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정도, 타인의 나에게 대한 긍정적인 표현과 수용정도를 말한다.

넷째, 친근감은 타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친근감의 정도를 말한다.

다섯째, 민감성은 타인에 대한 나의 감수성의 정도,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정도를 말한다.

여섯째, 개방성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나 개방성 정도,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의 정도, 타인의 부정적 느낌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타인과의 개인적 관심사를 나누고 싶은 정도를 말한다.

일곱째, 이해성은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난이도의 정도, 타인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난이도의 정도, 타인의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건설적으로 대하는 정도, 타인과 미래에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정도를 말한다(이진아, 2008).

질문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은 다음 <표Ⅲ-3>과 같다.

<표Ⅲ-3> 대인관계 척도 검사지의 문항항목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alpha$ )
만족감	4	1, 2, 3, 4	.80
의사소통	4	9, 14, 18, 19	.66
신뢰감	3	15, 23, 24	.42
친근감	3	5, 11, 16	.43
민감성	2	6, 10	.61
개방성	5	12, 17, 20, 21, 22	.77
이해성	4	7, 8, 13, 25	.48
전 체	25		.92

####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연구대상자 선정, 사전검사, 상담·비교집단의 구성, 품성계발 집단상담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 <표Ⅲ-4>와 같다.

<표Ⅲ-4> 연구의 진행 절차

실험단계	내용	일정	대상집단
연구대상자 선정	도내 보육시설 중 본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C시설 중·고등학생 현황조사	2009년 1월 2일 ~1월 9일	C시설
사전검사 및 집단구성	대인관계 척도검사 상담집단 10명, 비교집단 10명 구성	2009년 1월 14일 ~1월 19일	상담집단, 비교집단
실험처치	품성계발 집단상담 실시	2009년 1월 20일 ~2월 14일 까지 4주간 실시	상담집단
사후검사	대인관계 척도 검사	2009년 2월 14일	상담집단 비교집단

## 5. 자료처리 방법

상담집단에 대한 품성계발 집단상담 실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척도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채점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구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나온 Cronbach's  $\alpha$  값은 0.92이고,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0.0이다.



##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에 의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연구대상의 동질성 검증

대인관계 척도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밝혀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IV-1>과 같다.

<표IV-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전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만족감	13.80	1.135	14.00	3.018	.196
의사소통	13.90	1.370	12.60	1.955	1.722
신뢰감	10.00	1.333	10.30	2.214	.367
친근감	10.30	1.059	9.70	1.889	.876
민감성	6.30	1.252	6.40	1.174	.184
개방성	16.50	1.080	13.90	2.998	2.580*
이해성	14.10	1.853	13.50	2.173	.664
전체	84.90	5.915	80.40	12.738	1.013

\*p<.05

위 <표IV-1>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방성의 경우 상담집단이 평균 16.50점으로, 유의확률

5%내에서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평균점수에서도 상담집단의 평균점수가 84.90점, 비교집단의 평균점수가 80.40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은 서로 동질집단으로 할 수 있다.

## 2. 가설검증

### 1) 가설 1-1의 차이 검증

가설 1-1 :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집단상담에 참여한 후, 참여하기 전에 비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2> 상담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

하위요인	상담집단 사전검사(n=10)		상담집단 사후검사(n=10)		t
	M	SD	M	SD	
만족감	13.80	1.135	16.20	1.874	4.609**
의사소통	13.90	1.370	15.10	1.729	1.765
신뢰감	10.00	1.333	11.10	1.370	2.905*
친근감	10.30	1.059	11.30	1.160	2.535*
민감성	6.30	1.252	7.40	.966	3.973**
개방성	16.50	1.080	17.80	1.989	2.053
이해성	14.10	1.853	15.10	1.853	1.291
전체	84.90	5.915	94.00	7.930	3.545**

\*p<.05, \*\*p<.01



위의 <표Ⅳ-2>에서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대인관계에 대한 그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전체 사후평균이 94.00점으로 사전평균의 84.9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1%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545,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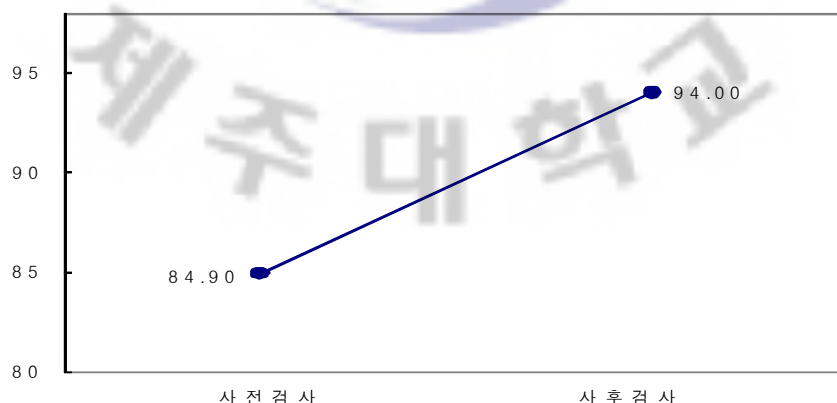
또한, 만족감의 경우 사후평균이 16.20점으로, 사전평균과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4.609, p<0.1$ ), 민감성도 사후평균 7.40점으로 사전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t=3.973, p<0.1$ )

또한, 신뢰감은 사후평균이 11.10점으로 타나났고( $t=2.905, p<0.5$ ), 친근감의 경우 사후평균이 11.30점으로 나타났으며( $t=2.535, p<0.5$ ), 각각 유의확률 5%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은 사후평균 15.10점으로 사전평균 13.90점보다 높았고, 개방성은 사후평균이 17.80점으로 사전평균 16.50점보다 높았으나, 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집단상담에 참여한 후, 참여하기 전에 비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긍정되었다.

이 같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도식화 하여 보면 [그림Ⅳ-1]과 같다.



[그림Ⅳ-1]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대인관계 척도 점수의 변화

## 2) 가설 1-2의 차이 검증

가설 1-2 :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후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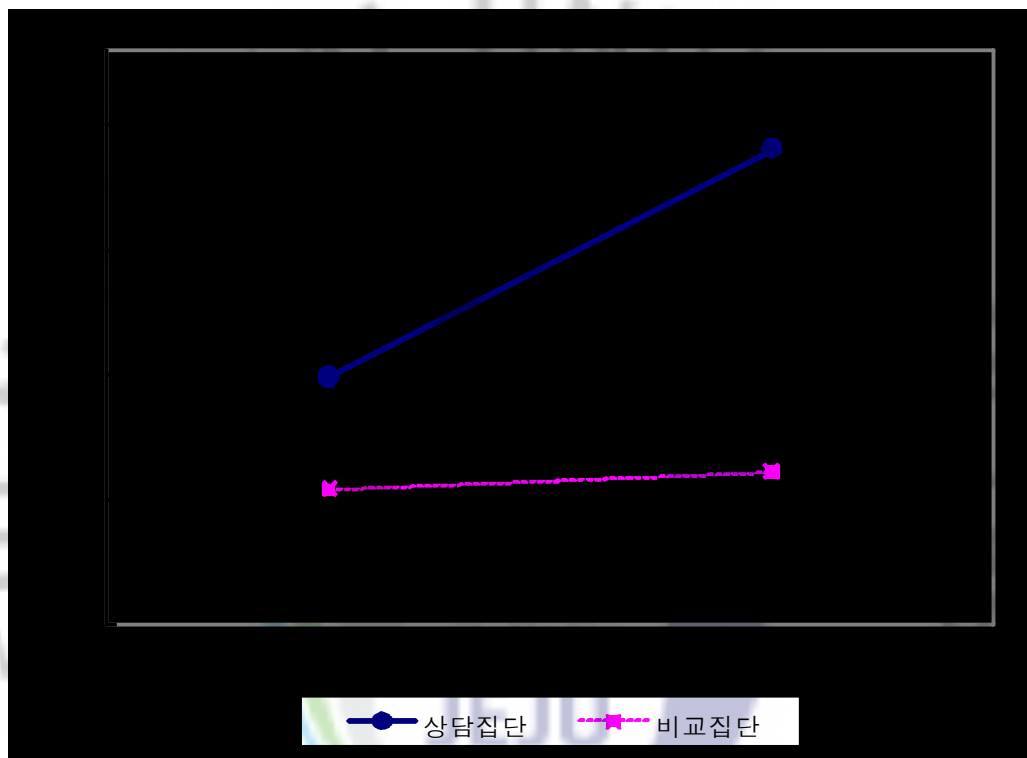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만족감	16.20	1.874	13.40	3.534	2.214*
의사소통	15.10	1.729	12.60	2.633	2.510*
신뢰감	11.10	1.370	10.20	1.549	1.376
친근감	11.30	1.160	10.00	1.491	2.177*
민감성	7.40	.966	6.70	1.494	1.244
개방성	17.80	1.989	14.70	3.713	2.327*
이해성	15.10	1.853	13.50	1.581	2.077
전체	94.00	7.930	81.10	13.017	2.676*

\*p<.05

위의 <표IV-3>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상담집단의 평균은 94.00점으로 비교집단의 평균 81.1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5%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676$ ,  $p<0.5$ ).

또한, 만족감은 상담집단의 평균점수가 16.20점( $t=2.214$ ,  $p<0.5$ ), 의사소통은 15.10점( $t=2.510$ ,  $p<0.5$ ), 친근감은 11.30점( $t=2.177$ ,  $p<0.5$ ), 개방성은 17.80점( $t=2.327$ ,  $p<0.5$ )으로, 이들 하위요인 모두가 상담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유의확률 5%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신뢰감은 상담집단이 평균점수가 11.10점으로, 비교집단의 평균점수 10.2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민감성과 이해성의 경우에도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Ⅳ-2]와 같다.



[그림Ⅳ-2]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대인관계 척도 점수의 변화

따라서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2>는 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의중(2003)의 연구,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이현주(2004)의 연구,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은모(2006)의 연구,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커뮤니

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등에서 효과를 입증한 김은숙(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 2) 가설 2의 차이 검증

가설 2 :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만족감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1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만족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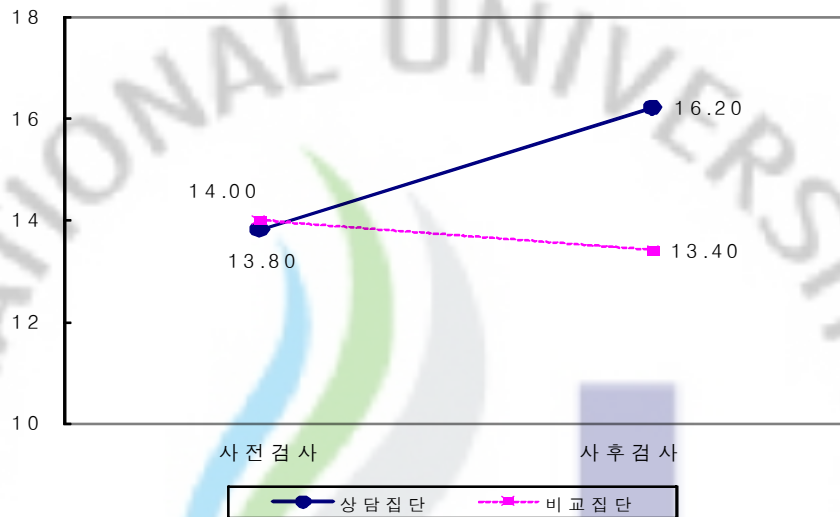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만족감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만족감	16.20	1.874	13.40	3.534	2.214*

\*p<0.5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감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16.20)이 비교집단(M=13.4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14, p<0.5$ ). 이 같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 하위요인인 만족감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IV-3]과 같다.



[그림IV-3]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만족도 점수의 변화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만족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수용되었다.

즉,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자기 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이의중(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 (2)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2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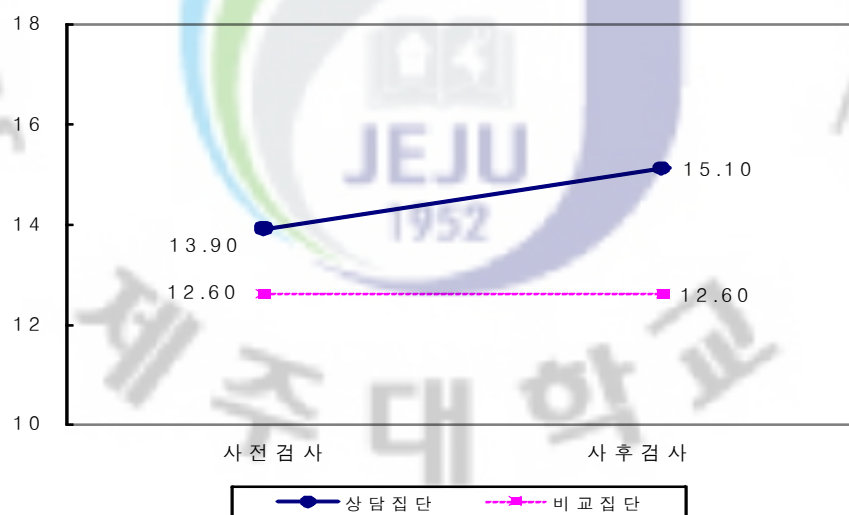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의사소통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의사소통	15.10	1.729	12.60	2.633	2.510*

\*p<0.5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15.10)이 비교집단(M=12.6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10, p<0.5). 이 같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IV-4]와 같다.



[그림IV-4]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의사소통 점수의 변화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2>는 수용되었다.

즉,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욕구와 바람을 파악하며, 자신과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이해정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리더쉽 생활기술의 하위요인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김은숙(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 (3) 신뢰감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3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신뢰감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신뢰감	11.10	1.370	10.20	1.549	1.376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감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11.10)이 비교집단(M=10.2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3>은 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이현주(2004)의 연구에서 교우관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인 시설청소년의 환경 특성상 집단 구성원들과 같이 지내는 빈도가 일반 청소년들보다 월등히 높기에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이

프로그램 전 이미 형성되어진 결과로서 시설청소년에 대한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신뢰감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 (4) 친근감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4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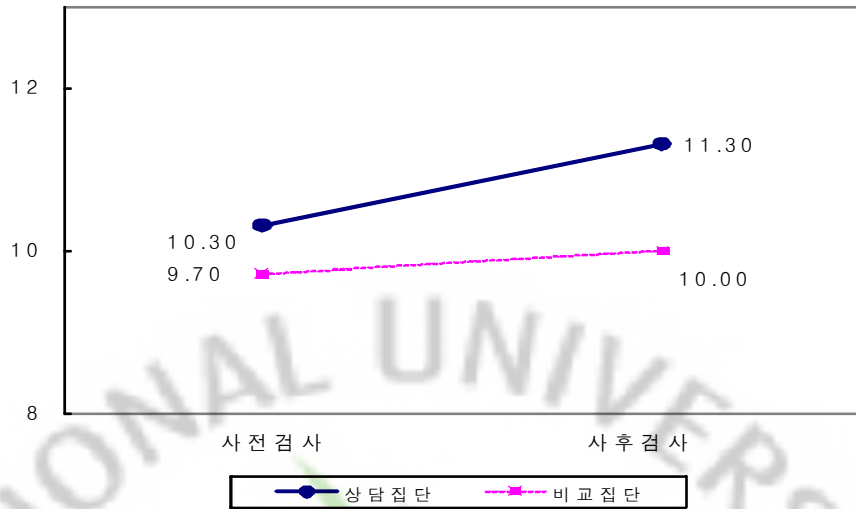
<표IV-7> 친근감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친근감	11.30	1.160	10.00	1.491	2.177*

\*p<0.5

<표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근감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11.30)이 비교집단(M=10.0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77, p<0.5). 이 같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 하위요인인 친근감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IV-5]와 같다.





[그림 IV-5]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친근감 점수의 변화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4>는 수용되었다.

즉,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친근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이현주(2004)의 연구에서 교우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 (5) 민감성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5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IV-8> 민감성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민감성	7.40	.966	6.70	1.494	1.244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감성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7.40)이 비교집단(M=6.7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5>는 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인 시설청소년이 일반적인 집단상담 구성원들과는 달리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같이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동안 이미 서로의 성격 특성을 알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위의 <표IV-8>을 보 다시피 집단상담 중 민감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다루면 충분히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6) 개방성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6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개방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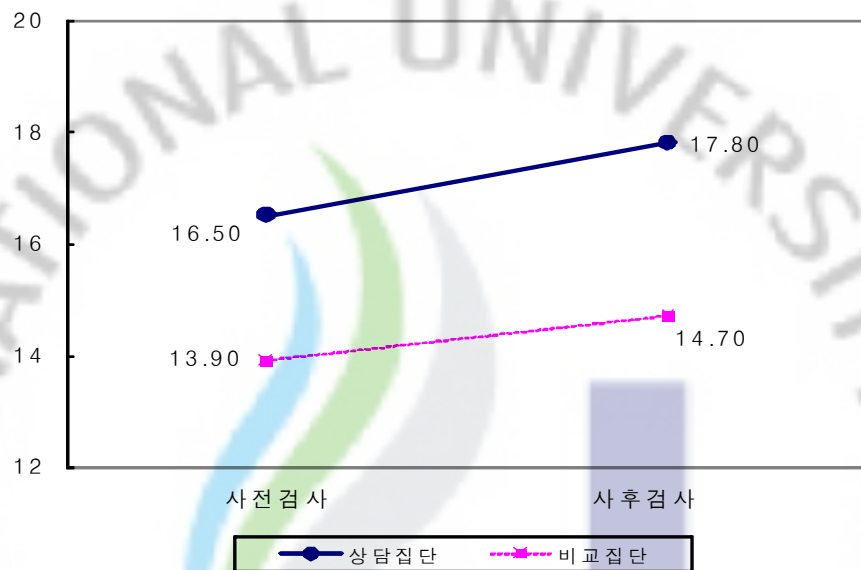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 개방성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개방성	17.80	1.989	14.70	3.713	2.327*

\*p<0.5

<표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성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17.80)이 비교집단(M=14.7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27, p<0.5$ ). 이 같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인관계 척도 하위요인인 개방성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Ⅳ-6]과 같다.



[그림Ⅳ-6]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개방성 점수의 변화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개방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6>은 수용되었다.

즉,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이해성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7 :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이해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IV-10> 이해성의 사후검사 비교

하위요인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이해성	15.10	1.853	13.50	1.581	2.077

<표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성의 사후검사 비교는 상담집단(M=15.10)이 비교집단(M=13.5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이해성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7>은 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이현주(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집단상담 운영시에 시설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와 타인과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정도를 다루는 활동이 충분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로 보여 진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요약

시설청소년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질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서툰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조력활동의 하나로 집단상담의 실시를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C시설 청소년에게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시행하고,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대인관계 하위요인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C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0명씩(상담집단 10명, 비교집단 10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척도 검사는 Guerney(197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김신정(2008)이 보호관

찰 청소년에게 적용한 것을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하위요인으로는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의 7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5문항이고 문항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2000년에 청소년용 품성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으로 ‘정직’, ‘배려’, ‘자기조절(통제)’에 중점을 두었고, 총 6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분석은 Windows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사전-사후검사 자료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대인관계 척도 사전·사후 검사에서 사전 대인관계 척도보다 사후 대인관계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사후 대인관계 척도가 높았다.

따라서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대인관계 하위 영역에 대한 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근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감, 민감성, 이해성의 경우 상담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모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2.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킨다. 이는 시설청소년이 품성계발 집단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의중(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이현주(2004)의 연구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은모(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등에서 효과를 입증한 김은숙(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영역인 만족감, 의사소통, 친근감, 개방성을 향상 시킨다.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 정도인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타인에 대해 느끼는 자신과의 거리감을 줄이며, 타인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건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시설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집단 따돌림, 학원폭력, 또래들의 잔혹행위 등과 같이 관계성 문제유형들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품성계발 집단상담을 제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품성계발 집단상담의 적용 및 연구결과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6회기의 단기간에 걸쳐 실시된 집단상담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품성계발 집단상담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가 향상된 것이 성격적 특성으로 내면화된 것인지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 검사를 통하여 집단상담 이후의 효과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C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가 각 집단별로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다른 시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과 구성원수를 더 늘려 집단상담을 운영하면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에 대한 효과성을 일반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및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시설청소년의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민경(2008).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공명자(2003). **명상훈련과 자기성장프로그램을 통합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불안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경아(2006). **인문계고등학생의 애착과 자아정체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김경희(2002). **기독교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백(2008).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부적 정서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희(2001). **시설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정(2008). **해결중심 집단상담에서 목표설정훈련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수강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숙(2007).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창(2006).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택(2008). **상호작용놀이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아(2005). **무용/동작치료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연(2008).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양숙(2002).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차점(2002).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실업계 여고생의 개인신념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수인(1990). 집단상담이 여학생의 인성특성 및 적응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미영(2008).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명선(2005). 청소년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은모(2006).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유자(2004).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컴퓨터 게임중독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효과.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정민(1997). 보육사의 자기개념 변화가 육아시설아동의 성격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연(2000).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현(2009). 청소년품성계발프로그램 지도자양성교육.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이영선(2005). 자기성장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의중(2003).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 및 자기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의(2008).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아(2008).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

- 개선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옥(2001).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2004).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동숙(2000). 약물남용 청소년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신일(2003). MBTI를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학교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형순(2008).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책임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옥(2001). 시설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1988).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아동복지, 창간호. 13-16.
- 장혜숙(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성향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성남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2008).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란(2005).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선기(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현(2007).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의 시설사회화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주(2001). 보육사의 양육태도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지경(2004).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은정(2007).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멋진 우리'.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품성계발 프로그램 '멋진 우리' 현장연구-초등학생용 배려증진 프로그램 효과검증. 한국청소년상담원.
- 현희애(2006).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청소년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기남(2003). 자기성장 집단훈련이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현주(1996). 집단상담에서 상담자에 대한 지각, 집단원의 참여태도, 집단응집력이 교정적 피이드백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집단상담 진행과정에 따른 변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 Effects of Group Counse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Juveniles in Facilitie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ark, Sung Min**

Supervised by professor, Huh, Chul Soo

The purpose of this paper<sup>2)</sup> is to check how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 of juveniles protected in fac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ollowing subjects are assigned.

Subject 1. How does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affect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 of juvenile in facilities?

Subject 2. Is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effective for developing satisfaction, communication, reliability, intimacy, sensitivity, openness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solve those issue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erforms assignment of targeted group, pre-surveying, composing counselling group and comparative group, applying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inspection after counselling and data analysis respectively.

Each 1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unselling group of 10 students and comparable group of 10 students) who live in C facility in Jeju province are selected as targeted groups of this research.

For measuring inter-personal relation in this paper, Relationship Change Scale of

---

2) This paper is for master's degree, and it is submitted on Aug, 2009 to the committee of post.

Guernsey(1977) is translated meeting our environment by Moon Sun Mo (1980) and restructured for juvenile by Kim Sin Jung (2008) and finally used by this paper. As 7 sub factors of inspections, they consist of a total 25 questions including satisfaction (4 articles), communication (4 articles). reliability (3 articles). intimacy (3 articles), sensitivity (2 articles), openness (5 articles) and understanding (4 articles), and questionnaire type used 5 pointed scale of Likert.

The program for developing personality in this paper uses a education program for juvenile's personality developed by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in 2000 consisting of a total of 6 places including place of meeting, place of truth, place of harmonization, place of wisdom, place of adjustment and place of outcome primarily focusing on 'Honesty', 'Consideration' and 'Self-adjustment (control).

Researches who saw this established a total of 6 times program consisting of 1 place of meeting, 1 place of truth, 1 place of harmonization, 1 place of wisdom, 1 place of adjustment and 1 place of outcome. I performed a total of 6 times programs for each 100 minutes, 2 times every week. Windows SPSS 10.0 is used for data analysis in this paper. In order to verify hypothesis assigned by this paper. t-test is used with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ver the collected data.

As the result,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s;

First, inter-personal relation of juveniles in facilities who attended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has been meaningfully advanced compared with those who didn't attended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Second, sub factors in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communication, intimacy and openness in juveniles who attended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have been meaningfully advanced compared with those who didn't attend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From the results mentioned above, it is believed that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helped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in which other see and feel themselves in inter-personal relations, enhance feeling of themselves and others, shorten gaps feeling others and positively express their negative thinking.

It is believed that attending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helped

juveniles in facilities so that they acquire and improve abilities for inter-personal relations which are necessary to live 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others. Therefore, group counselling for developing personality is believed to help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 for juvenile in facilities.



## 부 록

<부록 1> 대인관계 척도 설문지 ..... 49

<부록 2>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 52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설문지에는 정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 내용은 순수하게 학문연구의 자료로만 사용할 것이며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성민

- \*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빠짐없이  $\sqrt{\quad}$  표시를 해 주세요.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                      ② 여자( )
  2. 현재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① 중학교( )                      ② 고등학교( )
  3. 학생의 현재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 대인관계 척도 질문지

다음의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아래와 같이 √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친구가 많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고 생각되면 그 아래 칸에 √표를 합니다.

### <응답요령>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해 주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욕구를 잘 안다.					
7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알고 있다.					
8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쉽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빨리 알아챈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한다.					
13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					

	내 용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잘 믿는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17	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에 자신이 있다.					
18	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1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안 느낀다.					
2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잘 표현한다.					
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이라도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표현한다.					
22	나는 나의 개인적인 관심거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잘 나눈다.					
23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좋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					
2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인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품성계발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의 개괄적 구성 및 회기별 목표는 연구방법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회기에 100분씩 총 6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덕목별로 본 프로그램의 각 회기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용 품성계발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기만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 ▶ 도입단계

도입단계에서는 집단을 안내하고 집단성원과 리더가 서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것이라는 ‘우리’라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만남의 장(1회기)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성, 실시시간 등에 관해 구조화하고 공받기를 통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집단원들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첫 회기의 낯설음과 긴장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하게 집단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게임 활동을 한다. 이어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서면, 가상의 ‘신기한 문방구(본 프로그램에서는 신비한 약국을 활용함)’에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과 방해되는 마음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함양하고자 하는 덕목을 구체화 한다.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고무공, 강화물(사탕류)

### 1. 진행과정

#### 1) 자기소개 톱툰!

(1) 준비 :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한 축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자리배치를 새롭게

게 할 수 있는 활동 게임을 활용한다.(예: 과일장수,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2) 활동

- 가. 두 명씩 짝을 짓고, 5분-10분 정도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의 소재는 친구의 별칭을 소개받거나, 별칭이 없다면 지어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
- 나. 전체가 모여 먼저 지도자가 시범을 보이고 한 집단원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한다.
- 다. 고무공을 가진 집단원은 짝이었던 친구의 입장이 되어 소개를 한다. 두 명 모두 소개 후 소개를 듣고 싶은 집단원을 향해 고무공을 전달한다.
- 라. 공을 받은 집단원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 2) 신기한 문방구(신비한 약국)

### (1) 활동

- 가. 집단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에 무대를 마련하고, 지도자는 문방구(약국)의 주인이 되어 문방구(약국)의 특징을 소개한다.
- 나. 집단원 각자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문방구(약국)에서 살 수 있는 자신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다. 문방구(약국) 주인은 무대 위에 올라 온 집단원이 어떤 마음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고, 원하는 마음을 얻고 난 이후의 상태를 상상하게 한 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 라. 원하는 마음을 얻은 집단원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의 마음 한 가지를 주인에게 되판다.

## 3) 우리의 다짐

### (1) 활동

- 가. 집단원들은 1회기가 끝날 때, '우리의 다짐' 내용을 읽는다.
- 나. 각 집단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그러한 규칙이 왜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다.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도중에 규칙을 필요에 따라 새로 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느낌 나누기

가.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생각한다.

나.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전개단계**

전개단계에서는 진실, 배려, 자기통제에 대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며, 이를 행동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의 덕목 함양의 동기를 높인다.

■ **진실의 장(2회기) : (정직에 관한 인지-정서-행동과제의 수행)**

먼저 활동적인 게임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고 난 뒤, 그 동안 진실 되지 못했던 경험을 고백쪽지에 기록하여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쪽지함에 넣어 뒤섞어놓고, 한 사람씩 고백쪽지를 집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읽은 사례를 가지고 거짓된 행동이 가져다주는 불안, 죄책감, 심리적 불편감 등의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진실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 거짓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집단장면에서 역할극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실생활에서의 실천동기를 높인다.

준비물 : 거짓말 투표용지, 고백쪽지, 바구니, 필기도구

1. 진행과정

1) 훌훌 터는 기쁨(고백 쪽지)

(1) 준비 : 고백 쪽지와 함께 차분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음악을 준비한다.

(2) 활동

- 가. 지도자는 고백 쪽지를 한 장씩 나눠준다.
- 나. 집단원들은 눈을 감고 이제까지 했던 거짓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을 떠올리고 그 일과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마음, 양심의 가책 등을 생각한다.
- 다. 자신의 거짓말 경험과 그로 인한 불편했던 마음 또는 앞으로의 다짐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
- 라. 집단원들이 고백 쪽지를 다 썼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잘 접은 후 가운데 바구니에 집어넣어 섞는다.
- 마. 한 사람씩 고백쪽지를 집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읽은 사례를 가지고 거짓된 행동이 가져다주는 불안, 죄책감, 심리적 불편감 등의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진실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2) 타임머신 획~

(1) 활동.

- 가. 앞서 나온 고백쪽지 사례 중 한 가지를 정하고 그 거짓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역할극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실생활에서의 실천동기를 높인다.

(2) 느낌 나누기

- 가.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생각한다.
- 나.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화목의 장(3회기) : (배려에 관한 인지-정서-행동과제의 수행)

먼저 집단활동에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으로 게임활동을 실시한다. 집단따돌림에 관한 역할극을 통해서 왕따 당하는 역할, 적극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심키는 역할, 왕따에게 무관심한 역할을 포함하여 역할극을 수행하게 하여 각각

의 입장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각 입장에 대해 느껴지는 점을 나눈다. 그 과정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따돌리는 사람의 불합리한 생각, 불편한 심정 등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배려행동 방안을 찾아보게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여러 장의 쪽지에 적어 왕따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험을 실천해보고 이에 대해 느낀 점을 나눈다.

준비물 : 필기도구, 전지

## 1. 진행과정

### 1) 더불어 사는 마음

#### (1) 활동

가. 소그룹을 만들어 역할극 준비를 한다.

나. 그룹별로 왕따를 당하는 역할과 가해를 하는 역할 방관자 역할을 정한다.

다. 역할이 정해지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소그룹별로 연습을 한다.

라. 연습이 끝나면 구성원이 모두 모여 소그룹별로 역할극을 진행한다.

마. 역할극이 끝나면 각자 역할을 했던 배역별로 느낌을 발표한다.

### 2) 마음의 선물

#### (1) 활동

가. 위의 역할극을 토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배려행동 방안을 찾아보게 한다.

나. 모아진 방안들을 여러 장의 쪽지에 적어 왕따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험을 실천해보게 한다.

#### (2) 느낌 나누기

가.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생각한다.

나.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 지혜의 장(4회기) : (배려에 관한 인지-정서-행동과제의 수행)

먼저 집단 안에서 배려하는 행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수호천사 정하기를 하고 마지막 회기 까지 수호천사들은 상대방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 그런 다음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려와 관련된 갈등사례를 가지고, 이 같은 상황에서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을 ‘나우선 생각’, ‘남우선 생각’, ‘함께하는 생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생각에 따른 행동, 느낌, 결과들을 조별작업을 통해 정리해보게 한다.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지

### 1. 진행과정

#### 1) 수호천사 정하기

(1) 준비 : 수호천사쪽지(집단원 수)

(2) 활동

가. 모두 쪽지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접는다.

나. 쪽지를 잘 섞어서 한 장씩 뽑고 누가 적혔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혼자서 확인한다.

다. 집단원 모두 자신이 뽑은 쪽지에 적힌 사람의 수호천사가 된다.

라. 결실의 장(6회기) 까지 상대방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

#### 2) 지혜로운 생각

(1) 활동

가. 활동지를 통해 생각의 세 가지 유형(나우선 생각, 남우선 생각, 함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본다.

나. 활동지 사례를 읽고 상황에 맞는 생각의 유형을 활동지에 작성한다.

다. ‘나우선 생각’, ‘남우선 생각’, ‘함께하는 생각’ 각각의 생각에 따른 행동, 느낌, 결과들을 조별작업을 통해 정리해보게 한다.

## (2) 느낌 나누기

가.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생각한다.

나.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 조절의 장(5회기) : (자기통제에 관한 인지-정서-행동과제의 수행)

다른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 활동으로 집단참여를 유도한다.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덕목들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적, 외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례에 적용하여 생각하게 한다. 그런 다음 역할수행의 방식으로 걸림돌과 가상적인 승부를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걸림돌과의 승부에 대한 경험을 나눈 뒤에, 걸림돌을 극복하는 절차를 학습하게 한다. 그 뒤 각자 느낀 점을 공유하고, 다음 회기에서 시행될 역할극 ‘인생의 갈림길’을 준비하기 위해 조 편성, 역할 선정,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지

#### 1. 진행과정

##### 1)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

###### (1) 활동

가. 자신이 원하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재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나. 위에서 생각해 본 것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외적 걸림돌과 내적 걸림돌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걸림돌과의 승부

###### (1) 활동

가. 내적 걸림돌, 외적 걸림돌, 주인공 역할을 정하여 걸림돌을 이겨내는 역할

극 준비를 한다.

다. 걸림돌 역할을 하는 구성원은 주인공이 스스로 결심한 일이나 약속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라. 주인공 역할을 하는 구성원은 걸림돌이 유혹하는 말에 적절하게 거절하는 말을 함으로써 유혹을 거절한다.

### 3) 걸림돌 다루기

#### (1) 활동

가. 걸림돌과의 승부에서 들었던 생각을 구성원끼리 나눈다.

나. 걸림돌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논의한다.

#### (2) 느낌 나누기

가.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생각한다.

나.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본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마무리 단계

지금까지 집단에서 느꼈던 경험과 자신의 변화과정을 나누고 이전에 집단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내용들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고 집단을 마무리 한다.

#### ■ 결실의 장(6회기) : (자기통제에 관한 인지-정서-행동과제의 수행)

본 회기에서는 걸림돌을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결과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역할극을 시행해보게 한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선택이 가져다주는 각각의 결과가 어떠한지 집단장면에서 경험해보게 하고, 지켜보는 다른 집단원들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역할극을 하면서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여 실제생활에서 걸림돌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또한 4

회기 이후 수호천사게임을 실시하면서 수호천사로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느낀 점, 수호천사로부터 배려를 받은 느낌 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려하는 행동이 주는 기쁨을 확인하고 배려행동의 실천의지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다른 집단원들에게서 느낀 점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한다.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지, 롤링페이퍼

## 1. 진행과정

### 1) 인생의 걸림길

#### (1) 활동

가. 걸림돌의 유혹에 넘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의 시나리오와 걸림돌의 유혹을 잘 극복하고 경험협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나. 주인공과 걸림돌의 역할을 정하고 대사를 만들어 역할극을 시작한다.

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선택이 가져다주는 각각의 결과가 어떠한지 집단장면에서 경험해보게 하고, 지켜보는 다른 집단원들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역할극을 하면서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여 실제생활에서 걸림돌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 2) 수호천사 게임

#### (1) 활동

가. 지도자는 4회기에 실시되었던 수호천사 활동을 상기시킨다.

다. 집단원들은 서로 바라보며 자신의 수호천사가 누구라고 짐작되는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본다.

라.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마음속으로 떠올렸던 수호천사를 동시에 지목한다.

마. 자신이 생각한 수호천사가 실제 수호천사와 일치했던 경우와 자신이 생각한 수호천사가 달랐던 경우를 알아보고 왜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3) 마무리

#### (1) 활동

- 가. 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의 마지막임을 상기시키고, 이제까지의 활동들 중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 떠올려 보게 한다. 또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새겨 보게 한다.
- 나. 지도자는 앞면에는 내용이 없는 상장, 뒷면에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글을 쓸 수 있는 활동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다. 프로그램에서 이제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후에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하고 나누어준 상장에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상장 문구를 작성하게 한다.
- 라. 모두 상장을 작성한 것을 확인한 후에 오른쪽 옆의 친구에게 자신의 상장을 건넨 후 돌아가면서 친구의 상장을 직접 수여하고 박수를 쳐주는 시간을 갖는다.
- 마. 상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뒷면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한다. 이때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들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2) 느낌 나누기

- 가. 상장을 쓰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장 문구는 잘 생각이 났는지, 내 자신이 쓴 상장을 친구에게 직접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집단원과 함께 나눈다.
- 나. 집단원들이 모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며 프로그램을 마치고, 평가지 작성과 수료식을 한다.